

#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시회 광주서 열린다

‘포토닉스 코리아 2025’ 30-31일 DJ센터  
70여개 기업·기관 130여개 부스 참가  
광통신 등 8대 광융합산업 신제품 선보

국내 유일의 최대 규모 광융합산업 전시회인 ‘포토닉스 코리아 2025(제23회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2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진흥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미래형 자동차·광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광융합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KT가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협력관’을 운영, 고려오토론을 포함한 11개 기업에 각각 독립된 전시 및 상담 공간을 제공한다.

KT는 이 공간을 통해 협력사들의 주요 제품

과 기술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광융합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옵토닉스, 한국알프스, 오이솔루션, 엔에이치네트웍스, 애니캐스팅, 그린광학, 티디엠, 이상테크 등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강대·전남대 산학협력단 등 국내 70여개 기업 및 기관이 130여개 부스를 통해 전시에 참여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광통신(광커넥터, 광송수신기, 광케이블 등) ▲광조명(상업·주거·공공형 조명, 특수조명) ▲광의료바이오(정형외과용 치료재료, 광초음파 의료기기 등) ▲광정밀(광센서, 광계측기기) ▲광소재부품(광통신 모듈, 광학 렌즈, 광섬유 등) ▲광영상정보(LCD, OLED, 영상표시기기 등) ▲광결상정보(디

지탈·모바일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 등) ▲광에너지(광에너지 변환 및 저장장치 등) 등 광융합 8대 분야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80여명의 바이어가 초청돼 수출 상담회도 함께 열리는 등 진흥회는 총 100여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7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 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광융합 전문 포럼인 ‘제16회 광융합산업진흥포럼’을 비롯해 광융합산업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및 제품디자인 공모전, ETRI 테크데이 등 다양한 컨퍼런스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진흥회 윤경모 회장은 “광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라면서 “이번 전시회가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진흥회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한전, 인적자원개발 최고권위 ‘Unleash Award’ 수상

국내 기업 최초 미국·유럽 대상 동시 석권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미국과 유럽 양대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의 대상을 같은 해 동시 석권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HRD 역량을 입증했다.

한전은 22일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HRD 컨퍼런스인 ‘Unleash World’에서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는 지난 5월 미국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주관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이번 수상에서 한전은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HRD 혁신의 3대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우선 HRD 기능을 단순한 지원 역할을 넘어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포지셔닝했다는 점이다. 전 직원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인재상 ‘P.O.W.E.R(Passionate, Open-minded, Wise-thinking, Ethical, Responsible)’을 재정 의하고 교육, 교육, 평가 등 HR 전반에 연계했다.

직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인재육성 체계를 확립한 점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전은 고졸 직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개설한 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직무별 역량사전을 기반으로 직원 성장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축적의 시간’ 제도 운영을 통해 근무 중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디지털 전환 기반 학습체계를 구축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초실감 기술(VR)을 활용한 안전훈련시스템을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했으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알고리즘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세계 최고 권위의 ATD BEST Awards와 Unleash HRD Award를 한해에 동시에 수상한 것은 글로벌 수준의 HRD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이 대한민국 HRD를 선도해 급변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어갈 최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 내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오른다

인하율은 소폭 축소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이 18번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완원을 결정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유종별 ㉠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인하율 조정

| 단위: 리터(천원 환, (-): 인하율) | 2025년 5월 1일~10월 31일 |           | 2025년 11월 1일~12월 31일 |           |
|------------------------|---------------------|-----------|----------------------|-----------|
|                        | 인하전                 | 조정전       | 조정후                  | 조정후       |
| 휘발유                    | 820                 | 738(-10%) | 763(-7%)             | 763(-7%)  |
| 경유                     | 581                 | 494(-15%) | 523(-10%)            | 523(-10%) |
| LPG부탄                  | 203                 | 173(-15%) | 183(-10%)            | 183(-10%) |

자료: 기획재정부

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세 부담이 경감될 수준이다.

㉡ 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20원 저렴하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완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의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위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수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 교육과정     |                  |                           |                  |
|----------|------------------|---------------------------|------------------|
| 2급지도자과정  | 28만원<br>자격취득 총비용 | 실기실습장<br>이용권 33회<br>합격시까지 | 1:1지도<br>사전예약    |
| 1급지도자과정  | 36만원<br>자격취득 총비용 | 실기실습장<br>이용권 33회<br>합격시까지 | 1:1지도<br>사전예약    |
| 초급완성반과정  | 12만원             | 실기실습장<br>이용권 15회          | 1:1지도/3회<br>사전예약 |
| 초급원포인트과정 | 6만원              | 실기실습장<br>이용권 6회           | 1:1지도/2회<br>사전예약 |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수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